

대학생들의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에 따른 개인색채 유형 분류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박 화 순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디자인학과

Personal Color Types Classified by Skin and Hair Colors of College Students in Taegu and Kyungbuk Area

Park, Hwa-Soon

Dept. of fashion design, Taegu University

(2000. 8. 8 접수)

Abstract

This dissertation has been intended to grasp the components of personal colors and classify personal colors. The Method of the study was quasi-experimental. In the experiment to evaluate personal colors, the subjects was 315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Taegu and Kyungbuk area. The evaluations were analyzed by SAS and the methods us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T-test.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components of subjects' personal colors were found to be the colors of skin and hair. Secondly personal colo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arm, cool, and ambiguous. Third types of personal colors tended to be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Key words: personal colors, skin colors, hair colors; 개인색채, 피부색, 머리카락색

I. 서 론

인간의 신체와 의복은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그 역할이 크며, 착용자의 이미지는 착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굴, 머리, 체형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과 역할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다^{1)~3)}. 이미지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체 색을 찾아내고 그 색의 특징에 어울리는 개인색채와 그 개인색채에 어울리는 의상 연출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돋보이게 하면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자기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개인색채와 의복색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1980년에 이르러 Carole Jackson은 그의 저서 *Color Me Beautiful*에서 개인색채를 4계절로 분류하여 그에 어울리는 의복색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였다⁴⁾. 그 후 1986년 JoAnne Nicholson의 2인도 이 주장을 이어가며 소비자들에게 개인색채의 이미지를 상담해 주면서 개인색채에 따른 의복색의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얼굴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연구⁵⁾가 진행되고 있고, 사진 인쇄 TV분야의 얼굴색 기호성과 기억색 등에 관한 연구보고가 있으며⁶⁾, 현재

는 측색기기를 사용한 측색이 일반화되고 있다. 橋本幸子の 2인기는 피부색과 의복색의 조화 연구에서 일본인은 분홍색계와 내츄럴계, 약간 채도가 높은 내츄럴계, 갈색계, 노란색계의 피부색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방송이나 이미지 컨설팅에 Carole Jackson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개인색채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측면에서 정리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개인색채에 대한 기존 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여 이론적 개념을 파악하고,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개인색채를 분류 분석하여 개인색채를 유형화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복색과 화장색으로 자신의 패션이미지 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개인색채의 개념

개인색채는 크게 지적, 인격적 색채와 신체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신체색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미 지관리에 있어서 개인색채는 주로 인체에 나타나는 색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今井彌生⁸⁾은 개인색채의 정의를 개인의 색채, 인격적 색채를 말하고, 퍼스넬리티가 주된 형성요인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색채는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에 들어 있는 타고난 자연색이다. 개인의 신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 색에는 색상의 온도감과 명도의 속성이 있다⁹⁾. 또한 색채는 외모와 기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잠재적이지만 개인의 분위기에 강한 영향을 끼치므로 자신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연스러운 색을 찾아서 자기의 피부가 깨끗하고 윤기 있어 보이고, 머리카락은 반짝거리고, 눈동자는 빛나고, 치아는 희게 보이게 하여 효과적으로 웃을 입도록 타고난 신체의 색을 찾는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채는 한층 더 세련미를 더해 준다. 피부색은 옷, 화장, 장신구 등 사람이 입는 모든 다른 복장색의 바탕으로 작용한다. 어떤 색이라도

자신의 피부색이 탁하고, 창백하고, 회색빛이 돌고 진홍같이 보이면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색이다. 반면 적합한 색은 자기의 피부를 언제나 맑고, 윤기 나게 보이도록 한다¹⁰⁾.

이상에서 개인색채는 개인의 타고난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에 나타나는 자연 색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색채를 파악하여 그에 조화되는 의복색을 선택하여 입으므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인색채의 기본 요소

개인색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은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에 나타나는 자연 색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색채의 기본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피부색

피부의 빛깔은 진피 표층의 모세혈관 내의 혈액의 빛깔과 표피 및 진피 내의 멜라닌 색소(melanin)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데 표피층의 두께나 그 밖의 병적 색소의 출현에 의해 변한다. 헤모글로빈(hemoglobin)이 많으면 붉은색을 띠고, 적으면 창백하다. 정맥혈이 정체되면 청색을 띠거나 좀 검게 보인다. 표피의 멜라닌이 증가하면 황갈색 내지 갈색으로 보인다¹¹⁾. 또한 카로틴(carotene)이 많으면 노란색을 띠게 된다. 머리카락색은 변할 수 있지만 피부색과는 성인이 되면 일생동안 고정된다^{12~14)}

피부에서 헤모글로빈 색소는 빨간색(분홍빛 또는 장미빛)과 오렌지색(복숭아)의 양과 자주색(연자주)의 양을 말한다. 멜라닌 색소는 무채색의 형태로 검정, 갈색, 회색, 흰색에서 갈색 빛이나 회색빛 또는 찬 기운이 도는 흰색이 있다. 멜라닌 색소는 또한 녹색(올리브색), 노랑(연노랑, 금색조)에서 나온 색이 될 수도 있다. 멜라닌 색소를 찾으려면 햇볕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인 손바닥과 손목 안쪽, 목, 이마를 보면 알 수 있다¹⁵⁾. 푸른빛이 도는 피부색은 정맥이 표면 가까이 나와 있거나 혹은 약간은 분홍에서 밝으레한 빛으로 보일 수도 있다. 노란빛의 바탕색을 지닌 얼굴은 베이지색이 더 많이 보이며 약간의

노랑에서 올리브색으로 보인다¹⁶⁾.

우리 나라 사람의 피부색상은 6.5YR을 중심으로 5YR~7.5YR의 범위에, 명도는 6~8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명도 7이상은 하얀 피부, 6.5정도는 보통 피부, 6.5미만의 사람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색상 면에서는 5YR계의 사람은 적색 피부, 6.5YR의 사람은 보통 피부, 7.5YR의 사람은 황색 피부로 대별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하얀 피부일수록 채도는 낮아지고, 검은 피부일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¹⁷⁾

2) 머리카락색

현대인이 가진 머리카락색의 형질 중에서 변이가 가장 현저한 것은 빛깔, 형태, 분포, 밀도, 머리카락의 종류 등이다. 빛깔은 황백색(금발머리)이라는 블론드(blond)에서 흑갈색 내지는 흑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주로 모간(毛幹) 속의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럽인을 제외한 인류집단의 성인 머리카락색은 거의가 흑갈색 또는 흑색이다. 머리카락은 1개월 동안 1.5~2cm 자라며, 밀도는 머리의 앞, 뒤, 정수리. 측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머리카락은 뽀뽀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있으며 직모와 파상모, 측모가 있다¹⁸⁾.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색조는 하나일수도 있고, 머리카락색이 희끗해 지고 있거나 햇빛을 받으면 여러 색이 될 수도 있다. 목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색 끝을 보거나 머리카락색의 뿌리 부분을 보고, 햇빛, 염소, 퍼머약 등으로 변색되지 않은 자연 머리카락색을 찾아야 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염색한 머리카락색이 피부와 눈동자의 색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¹⁹⁾. 머리카락색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색조화장을 할 때 특히 입술화장색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머리카락색과 입술색은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색이 밝을수록 입술색도 밝게 하고 머리카락색이 검을수록 입술색도 진하게 한다²⁰⁾.

3) 눈동자색

눈동자는 안구와 시신경으로 이루어지고 안구벽

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가장 바깥층은 각막과 강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막은 안구벽 전반부의 1/6~1/5을 차지하며 투명하고 흔히 검은자위라 하는 부분이다. 홍채는 중막의 전단부로서 중앙에 원형의 동공이 있는 원반모양의 얇은 막으로 한국인의 경우 대개 흑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다²¹⁾. 개인색채에서의 눈동자색은 주로 홍채색을 말한다.

3. 개인색채의 유형 분류

이상에서 보듯이 개인색채의 요소는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을 중심으로 타고난 색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온도감에 따른 분류

개인색채의 주된 색채는 일반적으로 색채가 지닌 심리적 온도감에 따라 따뜻한색과 찬색의 명도, 채도를 고려하여 분류한 방법이다.

McJimsey²²⁾에 의하면 찬색피부의 특징은 밝고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 눈과 피부 밑에 약간의 붉은 색조를 가진다. 붉은색은 연한 피부로서 얼굴을 붉히면 쉽게 붉은 자색이 된다. 그리고 따뜻한 피부색조는 옅은 아이보리에서 짙은 올리브나 갈색톤에 이르기까지 명도가 다양하다. 즉 갈색 빛 금발과 선명한 갈색 머리카락색은 검은빛이 두드러진 오렌지빛 피부색조를 기본으로 해서 크림색조를 띤 피부까지 다양하다. 머리카락은 노란빛을 띤 연 담황색에서 오렌지빛 금발이 따뜻한 색상이지만, 일부 금발은 채도가 너무 낮아서(보라에 의해 둔해진)실제로 녹색빛을 지닌 차가운 측면이 있다. 중채도의 연한 금발은 피부색조가 차갑고 눈이 푸른빛이면 찬 색조이다. 갈색피부를 지닌 갈색 눈동자의 금발은 따뜻한 측면이 돋보이고, 따뜻한 머리카락색은 소위 빨간 머리카락색으로서 실제 노란빛 오렌지, 오렌지, 붉은빛 오렌지색이다. 갈색머리는 오렌지의 중간색으로 채도와 명도가 다양하다. 검정과 갈색 머리카락색이 오렌지빛이 두드러지면 햇빛에서 거의 갈색으로 보인다. 눈동자색에서 파란색, 회색빛 파랑, 회색, 보라빛 눈동자색은 차가운 면을 부각시킨다. 반면 갈색, 초록, 담갈색의 눈동자색은 따뜻한 색상을 나타낸다.

Davis²³⁾는 사람의 피부색이 밝든지 어둡든지 간에 건강함은 대개 빨강과 주홍의 기본색상과 관련이 있으며 건강이 나쁜 것은 비정상적으로 노란 색상과 관련이 있다. 건강함은 해맑은 피부이고 병이 들면 탁한 느낌의 피부를 가진다. 사람의 피부 색채가 주로 주홍에서 주황색 범주에 들어가지만, 아주 적은 양의 초록, 파랑, 자주색을 지닌다. 오렌지가 바탕이 되는 색상에 비해서 푸른빛이 아주 적은 피부는 더 밝아 보이고 푸른빛이 많으면 탁해 보인다. 고채도의 밝은 피부는 “따뜻함”으로 나타내고 탁한 채도는 “차가움”으로 나타낸다. 정상 머리카락색은 순수 노랑과 회색을 포함하고 노랑은 밝은 채도이고, 회색은 어두운 채도 쪽이다. 눈동자색은 붉은 빛의 오렌지에서 노랑빛의 오렌지에 이르는 색이며, 또한 다양한 갈색과 담갈색 그리고 청자색에서 청록의 색을 띤다. 청색의 범주는 대개 명도가 밝고 채도는 거의 회색에 가까운 탁색에서 밝고 매력적인 청색이나 청록에 이를 수도 있다.

Mathis와 Connor²⁴⁾에 의하면 피부는 황갈색이나 아이보리색이고, 머리카락색과 눈동자색은 황금 갈색을 지닌 비교적 노란빛을 많이 띤 사람을 따뜻한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피부가 보라와 장미빛이 도는 갈색이고, 머리카락색은 찬 회색빛을 지닌 갈색, 눈동자색은 청회색과 푸른빛을 지닌 사람을 차가운 유형이라 하였으며, 개인색채의 각 요소에서 노란색 기운과 푸른색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개인색채의 각 요소에서 나타나는 색을 온도감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란빛을 지닌 것을 따뜻한형으로 명명하고, 푸른빛을 띤 것을 차가운형으로, 두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2) 이미지에 따른 분류

개인색채에 나타나는 색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휘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Jackson²⁵⁾은 개인색채의 각 요소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을 지닌 사람을 봄이라 하였고, 차고 부드러운 색을 가진 사람을 여름, 따뜻하면서 짙은색을 띠고 있어서 단단한 느낌을 가을, 찬색과 탁한 느낌

을 지닌 사람을 겨울로 분류하여 자연의 4계절로 개인 색채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Nicholson²⁶⁾은 크게 4종류의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피부색이 베이지색을 기본으로 하고 머리카락색이 금발이나 갈색을 지닌 사람을 차분한형이라 하고 미국여성의 1/4이상은 차분한형에 속한다. 피부에 분홍색빛이 있으며 머리카락색이 잿빛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온화한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피부나 머리카락색에 황금빛이 많으면 화사한형이고, 피부가 깨끗한 베이지나 아이보리색이고 머리카락색이 짙은 갈색이나 검정이면 즉 피부와 머리카락색의 대비가 강한 사람을 대비형이라 하였다. 또한 차분함과 대비, 차분함과 온화함, 온화함과 화사함, 화사함과 대비 같은 4가지 유형이 서로 혼합된 유형도 있다고 하였다.

Fuji²⁷⁾는 겨울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깨끗한 타입을 별빛이라 하여 흰색피부에 새까만 머리카락색을 지닌다. 한밤중의 하늘과 같이 깊이와 신비성을 가진 타입으로 청색을 띤 검정 머리카락색을 지닌 사람을 한밤중, 피부톤은 올리브이고 머리카락색이 회색이 되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빛나는 월광타입은 달빛, 여성스럽고 우아한 서리와 같이 차갑고 섬세한 타입을 서리라 하고 피부는 차가운 분홍색빛, 머리카락색은 백발, 하늘과 대지를 가르는 지평선처럼 차가움과 따뜻함의 중간에 있는 타입으로 피부는 분홍에서 올리브까지 색이 다양하며 머리카락색은 검정에서 갈색에 이르는 타입을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라 하였고, 흰 피부와 밝은 갈색 머리카락색으로 명도대비가 적은 사람으로 아침 햇빛처럼 밝고 섬세한 빛을 가진 타입을 일출, 노란빛이 많은 피부에 갈색 머리카락색을 가진 여름의 태양처럼 따뜻한 빛을 가지는 타입은 햇빛, 금빛 황동색 피부에 짙은 갈색 머리카락색을 지닌 사막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처럼 풍부한 색이 어울리는 타입은 일몰, 복숭아빛 피부에 백발을 지닌 갈색 머리카락색으로 여명이나 황혼의 희미한 빛처럼 세련된 부드러운 빛을 느끼게 하는 타입은 황혼이라고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저자의 견해에 따라 개인색채의 각 요소가 지닌 색채의 느낌으로 온도감, 명도, 채도, 요소간 대비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색채가 나타

내는 색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개인색채의 유형 분류 방법을 밝힌다.

첫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개인색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개인색채는 어떻게 분류 할 수 있는가

셋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개인색채의 분포는 어떠한가

넷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개인색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2. 실험방법 및 절차

1) 개인색채의 측정

개인의 색채를 구분하는 개인색채의 요소가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으로 결정된다는 외국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들 세 요인을 개인색채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개인색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맑은 날 오전11시에서 오후3시 사이에 대구대학교 남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을 육안으로 상대 비교하여 개인색채를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특징들에 대해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1999년 6월 한달 동안 대구 및 경북에 소재 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315명(남자155명, 여자160명)을 대상으로 맑은날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내에서 개인색채를 분류하기 위한 측색 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색 부위는 Jackson과 Mathis Connor가 관찰하는 부위 중에서 선택하였다.

측색 부위 중 피부색은 멜라닌의 갈색과 헤모그로빈의 붉은빛, 그리고 카로틴의 노란빛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중간부분과 왼쪽 손바닥 중심을 측색하였다. 머리카락색은 머리의 정수리부분과 측면 즉

왼쪽 귀 뒷면 위쪽의 자연 머리카락색을 측색하였다. 눈동자색은 홍채의 색상을 예비조사와 안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인공 안구색 4가지색 즉 밝은 황갈색, 짙은 황갈색, 밝은 푸른빛 갈색, 짙은 푸른빛 갈색으로 구분하여 피험자의 홍채색을 관찰자가 관찰하여 인공 안구색 4가지색과 비교하여 표시하게 하였다.

이때 개인색채의 측색에 사용된 측정기는 미놀타 제품 CR-300에 head 측정 개구부가 직경 5mm의 원형을 사용하여 측색하였으며, 측색조사는 3명의 훈련된 연구원을 선정하여 행하였다. 측색값은 Lab 값으로 표시하였으며, L은 명도를 나타내며 값이 높을수록 고명도이며, a와b는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a값과 b값의 교차점이 색상을 나타내며, 값이 낮을수록 저채도를 나타낸다. a값에서 +표시는 빨간색 방향이고 -표시는 녹색 방향을 나타내며, b값에서 +표시는 노란색 방향이고 -표시는 푸른색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피험자가 느끼는 개인색채에 대한 특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부가 부드럽다-피부가 거칠다, 피부에 윤택이 난다-윤택이 없고 까칠하다, 머리카락이 가늘다-머리카락이 굵다, 머리결이 부드럽다-머리결이 뻣뻣하다, 직모-파상모(곱슬머리)의 서로 상반되는 5개의 용어 쌍을 사용하여 어의차이 척도 7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2) 분석방법

통계처리는 SAS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색채의 분류방법으로 군집분석을 행하였으며, 여기서 사용된 k-평균 군집화 분석은 각 케이스와 소속된 군집의 중심점간 거리의 합이 최소인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비계층적 군집화(Non-Hierarchical Clustering)방법 중의 하나이다. 개인색채 유형의 모델과 남녀 같은 군집을 찾기 위하여 중심간 거리를 구하는 방법로서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D^2 = \sum_{k=1}^p)(x_{ik} - \bar{x}_k)^2$ 사용하였다. 유형의 분포를 알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색채 요소들의 남녀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테스트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개인색채의 유형분류

개인색채의 측색을 위해 팔목 안쪽과 손바닥의 피부색, 머리의 정수리와 측면의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을 직접 측색하여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색채의 요소

개인색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기 위해 Anova분석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피부색의 측정에서 팔목과 손바닥을 측정한 L, a, b 값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리카락색에서도 측면과 정수리 부분을 측색한 L, a, b값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동자색을 대표하는 홍채색은 유의도가 .932이므로 개인색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다양한 눈동자색이 의복색의 배색으로 사

<표 1> 개인색채의 요소

요소	측정위치	측정값	F값	Sig
피부색	팔목	L	109.939	.000
		a	140.104	.000
		b	92.874	.000
	손바닥	L	74.345	.000
		a	98.419	.000
		b	46.195	.000
머리카락색	측면	L	513.987	.000
		a	153.161	.000
		b	263.031	.000
	정수리	L	1060.382	.000
		a	299.972	.000
		b	238.581	.000
눈동자색			.070	.932
피부 특징	부드럽다-거칠다	7.810	.000	
	윤택이난다-까칠하다	1.206	.301	
머리 카락 특징	가늘다-굵다	.144	.866	
	부드럽다-뾰뾰하다	.675	.510	
	직모-파상모	.114	.893	

L: 명도 a와 b: 색상과채도

용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눈동자색이 거의 갈색계통이므로 의복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를 설명해 주는 특징으로는 개인색채를 분류하기 위한 척도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부의 부드러운 정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따로 분석해 보면, 여성들이 .059 수준에서 그 의미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655 수준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국내에서는 개인색채를 분류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요소로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과 머리카락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개인색채의 유형 분류

개인색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유형별 출현 빈도가 고르고 요소적 특징이 명확히 나타나는 3개의 집단을 선정하여 군집 분석하고 평균값과 분산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 1군집의 특징은 피

<표 2> 개인색채의 군집 유형 분류

개인 색채 요소		집 단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	F값
			(N=121)	(N=101)	(N=93)	
피 부 색	팔 목	L	60.77	57.22	55.57	111.46***
		a	5.89	6.09	8.44	140.61***
		b	11.55	10.16	12.40	93.89***
	손 바 닥	L	60.72	59.21	57.00	74.97***
		a	8.66	7.09	10.62	101.47***
		b	12.53	11.03	12.18	45.58***
머 리 카 락 색	측 면	L	17.37	25.41	16.10	516.59***
		a	.80	1.46	.64	153.43***
		b	1.52	-.80	1.33	263.68***
	정 수 리	L	16.32	25.54	15.71	1065.23***
		a	.58	1.39	.49	301.30***
		b	1.30	-.83	1.09	239.40***

L: 명도 a: +Red -Green b: +Yellow -Blue

P<.01 *P<.001

부색에 빨간색기운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고 노란색기운이 제일 강하며, 머리카락색에 있어서도 노란색기운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갈색 머리카락색을 지닌 집단이다. 따라서 따뜻한형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군집의 특징은 피부색이 중간 밝기이면서 노란색기운이 세 집단 중 가장 적으며, 빨간색기운도 적어서 외관상 피부색이 창백하게 보이고, 머리카락색은 밝으나 약간의 빨간색기운과 파란색기운을 지니므로 검정 머리카락색으로 보이는 집단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란색기운이 감도는 창백한 피부색과 검푸른 머리카락색을 지닌 타입으로 차가운형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군집의 특징은 피부색이 3집단 중 가장 어둡고 빨간색기운과 노란색기운이 많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카락색은 진하고 갈색빛을 띠고 있어 진한 갈색으로 보여지는 집단이다. 따라서 복숭아 빛갈처럼 빨간색기운과 노란색기운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이상적인 피부타입으로 복합형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3집단으로 분류된 결과는 Jackson과 Nicholson의 4집단의 이미지로 된 분류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Mathis & Connor의 3집단으로 분류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인색채의 유형별 분포

이상의 결과에서 3집단으로 나눌 때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을 각각 3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남성군집과 여성군집의 같은 유형을 찾기 위하여 윌리디안 측정법으로 측색 변수간 평균점 거리를 구한 결과, 여성1군집과 남성1군집이 7.40이며, 여성2군집과 남성3군집이 10.40, 여성2군집과 남성2군집이 18.86, 여성3군집과 남성1군집이 25.78, 여성3군집과 남성3군집이 28.97로 나타났으므로 여성과 남성간에 유사한 개인색채 유형으로 여성1군집과 남성1군집을 따뜻한형으로 명명하고, 여성2군집과 남성3군집을 차가운형으로 명명하며, 여성3군집과 남성2군집은 그 특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성3군집은 복합형으로 남성2군집은 피부색에서 팔목(L:52.12 a:7.97 b:10.79) 손바닥(L:56.62

a:8.16 b:10.86), 머리카락색에서 측면(L:25.58 a:1.54 b:-0.35) 정수리(L:24.11 a:1.26 b:-0.89), 피부결에서는 4.05로 나타나 그 개인색채의 특성이 찬형과 유사하므로 유사찬형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개인색채 유형 분포는 <표 3> 과 같다.

<표 3> 군집분석에 의한 개인색채의 유형별 분포

개인색채 유형	여자		남자		전체	
	N	%	N	%	N	%
따뜻한형	81	50.6	86	55.5	121	38.4
차가운형	30	18.8	49	31.6	101	32.1
복합형	49	30.6			93	29.5
유사찬형			20	12.9		
합 계	160	100.0	155	100.0	315	100.0

여자의 경우 따뜻한형은 81명으로 5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합형이 49명으로 30.6%를 차지하였다. 차가운형이 제일 적은 30명으로 18.8%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도 따뜻한형은 86명으로 5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차가운형이 49명 31.6%를 차지하였다. 유사찬형이 제일 적은 20명으로 12.9%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차가운형이 더 많으며, 밝고 깨끗한 복합형의 개인색채 타입이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군집분석 결과는 따뜻한형이 121명으로 38.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차가운형이 101명으로 32.1%, 복합형이 제일 적은 93명으로 29.5%를 나타내었다. 남녀별로 각각 군집한 결과와 전체를 군집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남성의 경우 따뜻한형과 차가운형의 2개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개인색채 유형의 성별 차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유형으로 명명된 여성군집과 남성군집의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색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따뜻한형 남녀의 요소별 차이

측정부위	성별	여(n=81)		남(n=86)		T-값	
		M	SD	M	SD		
피부색	팔목	L	59.42	2.07	55.99	3.14	8.39***
		a	6.40	1.09	8.41	1.33	-10.72***
		b	11.87	1.16	12.30	1.28	-2.27*
	손바닥	L	59.22	1.84	57.38	2.30	5.73***
		a	9.69	1.72	10.28	1.94	-2.07*
		b	12.69	1.09	12.15	1.16	3.07**
머리카락색	측면	L	16.82	1.34	15.71	2.04	4.19***
		a	0.71	0.34	0.63	0.32	1.63
		b	1.28	0.42	1.30	0.56	-0.14
	정수리	L	16.09	1.25	15.60	1.15	2.64**
		a	0.52	0.18	0.48	0.23	1.10
		b	1.17	0.39	1.07	0.40	1.69

L: 명도 a: +Red -Green b: +Yellow -Blue

*P<.05, **P<.01, ***P<.001

따뜻한형으로 명명된 여성군집과 남성군집사이에 차이를 <표 4>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피부색이 훨씬 더 밝고, 빨간색기운이 약간 적었으며, 머리카락색은 약간 더 밝은 갈색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뜻한형에서 남녀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피부

〈표 5〉 차가운형 남녀의 요소별 차이

측정부위	성별	여(n=30)		남(n=49)		T-값	
		M	SD	M	SD		
피부색	팔목	L	59.59	1.95	57.52	2.05	4.44***
		a	5.10	0.95	6.01	0.94	-4.17***
		b	9.57	1.02	10.26	1.22	-2.63*
	손바닥	L	61.02	2.10	58.85	1.96	4.66***
		a	6.49	1.71	7.19	1.35	-2.03*
		b	11.11	1.36	10.97	1.35	0.46
머리카락색	측면	L	26.52	1.13	24.88	1.80	4.99***
		a	1.59	0.25	1.40	0.31	2.93**
		b	-1.03	0.75	-0.85	0.89	0.92
	정수리	L	26.65	1.72	25.30	2.34	2.73**
		a	1.51	0.26	1.37	0.33	1.92
		b	-0.98	1.04	-0.91	1.08	-0.27

L: 명도 a: +Red -Green b: +Yellow -Blue

*P<.05, **P<.01, ***P<.001

색의 팔목과 손바닥, 머리카락색의 밝기와 정수리 부분의 노란색기운과 파란색기운의 정도에 대해서 P<.05 이상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차가운형으로 명명된 남녀간의 요소별 차이를 <표 5>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피부색이 좀 더 밝고, 빨간색기운이 약간 적었으며, 머리카락색은 약간 더 밝으면서 빨간색기운과 파란색기운을 조금 더 띠는 검은 머리카락색을 보여 주고 있다.

차가운형의 남녀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피부색의 팔목과 손바닥에서, 머리카락색의 밝기와 측면의 빨간색기운 정도에 대해서 P<.05 이상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개인색채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개인색채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이론적 연구와 준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개인색채의 요소는 피부색, 머리카락색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색채는 따뜻한형, 차가운형, 복합형으로 명명된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뜻한형은 노란색기운 피부에 갈색머리를 지닌 전체적으로 노란색기운이 많은 형이고, 차가운형은 파란색기운이 감도는 피부와 파란색기운을 띠는 검은 머리카락색을 지니며, 복합형은 피부가 복숭아 빛이고 머리카락은 갈색기운을 지닌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개인색채 유형의 분포는 따뜻한형이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은 복합형, 남성은 차가운형 순이었다.

셋째, 개인색채 유형은 성별에 따라 요소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개인색채의 성별에 따라 요소의 차이가 따뜻한형은 피부색의 팔목과 손바닥, 머리카락색의 밝기와 정수리 부분의 노란색과 파란색의 정도에 대해서, 차가운형은 피부색의 팔목과 손바닥에서, 머리카락색의 밝기와 측면의 빨간색 정도에 대해서, 복합형은 피부색의 팔목과 손바닥, 머리카락색의 측면과 정수리 부분에서, 피부색의 밝기, 팔목에서 빨간색의 정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차이

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색채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앞으로 남성의 개인색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색채의 유형을 모델화 하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표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을 젊은 대학생만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색채의 유형에 맞는 의복색과 화장색을 찾으므로 생기가 돌고 화사한 멋있는 패션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도주연·권영숙, Hairstyle 변화에 따른 얼굴이미지 요인과 분석—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6(3), 243—250, 1992.
- 2) 이선경·고애란, 남성의복착용자의 의복유행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직업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230—241, 1995.
- 3) 이선경·고애란, 남성의복착용자의 의복유행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직업관련 특성 및 외모특성추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4), 565—579, 1995.
- 4) Carole Jackson, "Color Me Beautiful", Ballantine Books, 17—25, 1980.
- 5) 藏塚也, 顔の比較 行動學, 織消誌, 37(9), 438—443, 1996.
- 6) 川上元郎, 石井彬子, 吉田眞雄, 兒玉 : 色の色票の研究, 色彩研究, 1(2), 1995.
- 7) 橋本令子 의 2인, 皮膚色と服裝色との調和, 日本家政學會誌, 35(6), 1984.
- 8) 今井彌生, 色彩科學事典, 日本色彩學會, p. 205, 1991.
- 9) Caral Mason Mathis Helen Villa Connor,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Timeless Editions, 113—153, 1994.
- 10) JoAnne Nicholson, Judy Sewis—Crum, Jacqueline Thompson, op. cit., 6—7.
- 11) 강형제,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29, 267, 1989.
- 12) JoAnne Nicholson, Judy Sewis—Crum, Jacqueline Thompson, op. cit., 6—7.
- 13) Carole Jackson, op. cit., 17—25.
- 14)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op.cit., 113—153.
- 15) ibid
- 16) Diana Lewis Jewell, MAKING UP by REX, Clarkson Potter, 30—31, 1986.
- 17) 이홍규, 칼라이미지사전, 조형사, 56—57, 1994.
- 18) 김순희, 동아원색 세계대백과 사전, 동아출판사, 12, p. 99, 1989.
- 19)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op.cit., 113—153.
- 20) Diana Lewis Jewell, op. cit. 30—31.
- 21) 이상옥,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vol 7, 636—637, 1989.
- 22)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14—229, 1973.
- 23) Marian L. Davis, op. cit 132—134.
- 24)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op.cit. 113—153.
- 25) Carole Jackson, op. cit. 17—25.
- 26) JoAnne Nicholson, Judy Sewis—Crum, Jacqueline Thompson, op. cit. 59—142.
- 27) Donna Fuji, 염경숙 역, 패션코디네이트와 이미지칼라진단, 그래픽사, 40—61, 1995.